



# 열린 종단, 함께하는 종단 실현

“변화, 합리적인 개혁, 함께하는 종단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소신을 밝힌 총무원장 당선인 지승스님은 수행과 포교, 총무행정 등 전 분야의 개선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종단 운영을 위한 6대 기조로 △대중공의 리더십으로 열린 종단, 함께하는 종단 실현 △교구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희망(중앙 권한의 점진적 교구 이양) △중단의 백년대계인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개념 총무행정 구현 △불교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교구권확립을 통해 국내외 한국불교의 위상 확대를 천명했다. 연령 50대 중반의 ‘젊은’ 총무원장으로서 안정 속의 변화를 예고했다.

각 기조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열린 종단’을 실현하기 위해 ‘종단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 ‘특보’ 형태의 형식적인 자문이나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에는 문종과 계파를 초월해 종단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적절히 안배된다. 또한 교역직 총무원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선발제도와 총무원수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재가불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교구 위상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화라는 세간의 현실에 맞게 중앙기관과 교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총무원 순환근무제를 늘려 중앙의 숙련된 총무행정기법을 지방에 적극적으로 전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과 교구의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총무행정 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의 교구에 관한 인사권을

## 당선인 주요정책 총무원장 직속 ‘종단발전위’ 구성 교역직총무원 공개선발제도 시행 국제팀 강화...해외교구 설립 박차 종단미래 담보할 정책연구소 설립

### • 총무원장의 권한과 역할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종헌(宗憲)에 따라 종단을 대표하고 총무행정을 총괄한다.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法階)는 종사(宗師)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한 3000여개 종단 소속 사찰을 총괄하며 종단 소속 사찰을 총괄하며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고,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는 한편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갖는다.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 승인권과 예산 조정권도 갖고 있다.

총무원장은 나이가 불교 주요 종단의 모인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으로 맡고 있다. 이밖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및 유지재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등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완전히 이양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2000만 수도권 인구의 포교를 책임지는 직할교구 주지에게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4년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지속적인 교세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현실화할 해외교구 설립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등 국제구호단체와의 협력도 이와 연장선에 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법

당 관련 망실재산 환수, 육군훈련소 범당 개원, 계통대 교육관 건립 지원 등 군포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종단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에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령연금과 의료 지원, 주거시설 확보, 회향시설 제공이라는 4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승려노후복지법 제정과 이를 운영할 재단 설립에 착수한다. 지승스님은 “스님들의 노후 문제 해결은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환경을 조성해 종풍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종단의 위상과 사회적 지도력을 높

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의 보장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춰 신개념 전산망인 ‘인드라넷(가칭)’을 도입해 총무행정을 표준화하고 전국 사찰, 단체, 유관기관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소 ‘불교미래연구원(가칭)’도 설립한다.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한 ‘비구니부’ 설치,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팀 성격도 새로운 정책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한국불교를 한 단계 도약시킬 잠재 동력을 최대한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종단 내 전문가 중심의 사업부를 구성해 불교 관련 각종 지적 재산권 보호와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효과적인 자산 활용, 수목장 및 육묘사업 마련, 다비장 설립 등으로 통해 종단 재정을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와 종교간 화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확립에도 나선다. ‘헌법정신 수호와 종교차별 금지 범불교대책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공직자종교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행위 처벌조항 삽입 등을 정부에 요구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비나눔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힌다. 이밖에 불교 종합미디어 설립,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템플스테이 국가지원 확대, 폐사지 보존에 관해서도 대책을 준비한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 ‘가장 조용한 선거 치렀다’

## 출마에서 당선까지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선거를 치르자’는 종도들의 서원이 현실화 됐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금권에 얼룩지지 않은 청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 중심엔 지승스님이 있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당선된 지승스님은 막연한 수사보다는 뚜렷한 정책을 들고 선거에 임했다. 금권선거를 철저히 배격할 채 직접 발로 뛰면서 종도들을 설득했다. 스님은 투명하고 공손한 자세로 화합과 공의를 거듭 강조했다. 안정 속의 발전을 바라는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였다.

## 4개 정책모임 후보로 추대

화엄회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등 중앙종회 내 모든 정책모임이 연대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대식을 거행하고 지승스님을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추대했다. 지승스님은 후보 수락사에서 “총무원장이라는 어려운 책임을 맡고자 하는 것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후보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공동 추대위원장은 정여스님 노현스님 도진스님 영담스님 지홍스님이 함께 맡았고 집행위원장은 무애스님 태연스님 정목스님 보원스님이 포진했다.

## 종단운영 6대 기조 ‘천명’

추대식 이후 말을 아끼던 지승스님은 지난 12일 후보로 등록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종단 운영을 위한 6대 기조를 천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착수했다. 추대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 선거대책위원회로 즉시 전환했다. 이때 벌써 중앙종회 내 모든 정책모임과 19개 교구본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님은 교만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해인총림 해인사로 내려가 법전 중정예하를 예방하고 총무원장 임후에 대한 소신과 원력을 고했다. 이후 제주도에 위치한 23교구본사 관음사만 제외하고 23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에 나섰다. 하루에 본사 2곳씩 들러야 하는 혹독한 일정이었다.

선거인단 스님들 앞에서 스님은 단순한 유세가 아니라 정책공약의 특징과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다. 교구본사 순회에 동행한 스님들은 “교구본사마다 각각의 역사와 특색에 맞는 질문이 많았다”며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회를 끝낸 소감을 묻자 지승스님은 “교구본사의 현실을 살피고 종도들의 살아있는 제언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총무원장에 당선 되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승적 정정과 관련된 논란이다. 음해세력은 괴문서 유포라는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고, 스님은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차분하



당선직후 총무원장 지승스님(왼쪽)을 예방한 지승스님.

게 대처했다. 지승스님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응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총무원 집행부는 절차상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논란은 가라앉았다. 후보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마지막까지 흑색선전이 난무했지만 법원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 33대 총무원장으로 당선

후보 추대위원회는 추대사를 통해 지승스님을 총무원장 후보로 결정한 이유로 ‘화합과 소통을 통한 종단개혁 완성’을 들었다. 그리고 세 시대에 맞는 총무원장의 덕목으로 강력하고 독선적인 지도력이 아닌 원용화합을 중시하는 소통의 능력을 택했다. 지승스님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종단을 운영하고 설계하는 데에는 일수분해 풀듯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뛰어난 스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총무원장이 아닌 ‘CEO’ 적인 마인드를 지닌 총무원장으로 일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오리를 주제로 한 농담도 인상적이었다. “오리는 잘 걷고 잘 뛰고 잘 날지만 아무도 오리를 고귀한 동물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종단은 한 사람의 걸출한 영도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와 재능을 모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함을 예들려 설명한 것이다. 선거 당일 조계사를 찾은 스님은 덩덤한 표정이었다. 당선이 확실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여유로운 미소로 선거인단 스님들을 맞이했지만 행동거지는 일거수일투족 신중했다. 소신과 원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되 늘 화합을 염두에 두며 주변을 살피겠다는 암시로 임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www.beomeo.kr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 禪刹大本山 梵魚寺 金井山

조 실 지 유  
주 지 정 여

선원장 인	각	박물관장 경	선	강	주	용	학
총무국장 도	관	교무국장 승	련	재	무	장	정
사회국장 법	귀	포교국장 일	광	호	법	국	장
연수국장 도	명	원 주 정	오	도	감	도우·효원	
		신도회장 이	윤	희			